

노들

제 50호

2004 · 11 · 12

노들장애인야간학교 Nodl Popular School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밑불이 되고 불씨가 되자!

바람

서울시 광진구 구의2동 16-3 정림회관 교육관 3층 · 연락처 02)446-9101(늦은 6시~10시) · 발행인 박경석 · 편집인 태애경 ·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nodl.or.kr> · E-mail master@nodl.or.kr



2004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노들인의 밤을 알리는 모습입니다.

【 노들 바람..... 이야기 】

그 세 번째 이야기

편집부



노들인의 밤 연습이 한참인 걸 보면서... 올 한해가 지나가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하지만 예년보다 많이 차분해진 노들인의 밤 분위기에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어느 책에 있는 글 하나를 옮겨봅니다.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손해 본 건 없다.

아들의 도시락 가방에다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다' 라는 쪽지를 써 넣었다. 손해본 건 없다.

슈퍼마켓에서 휠체어를 탄 여인을 위해 문을 열어 주었다. 손해 본 건 없다.

우체부 아저씨께 과자 한 상자를 드렸다. 손해 본 건 없다.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보고 싶다고 했다. 동생도 내가 보고 싶단다. 손해 본 건 없다.

양로원의 노인들에게 꽃을 사 드렸다. 손해 본 건 없다.

병으로 누워 있는 친구에게 국을 끓여다 주었다. 손해 본 건 없다.

그렇다. 손해 본 건 없다.

노들바람 '노들' 은 노란들판의 준말입니다. 농부의 노동이 녹아난 들판에 넘실대는 결실들을 뜻하는 말로 노들인 모두 대지를 일구는 농부라 생각합니다. 시퍼런 '경쟁' 의 도구로 차별과 억압의 들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과 연대' 로 '인간 존엄성과 평등' 이 넘쳐나는 노란들판을, 그 대안적 세계를 꿈꾸는 농부들 발입니다.



이 야 기 구 성

노들바람

[노들바람] 그세번째이야기 - 편집부 02

노들의 일상

[노들의 일상] 그 첫 번째 - 이일찬 04

[노들의 일상] 그 두 번째 - 류승화 06

[노들의 일상] 그 세 번째 - 안민희 08

[노들의 일상] 그 네 번째 - 좌동엽 10

[노들의 일상] 그 다섯 번째 - 편집부 12



노들안에 무슨 일이

[노들안에...] 삶의 한 조각 - 좌동엽 14

[노들안에...] 허진태 이야기 - 태애경 16

[노들안에...] 신임교사 이야기 - 전권세, 이화연 19

[노들안에...] 게시판에서 - 강병안, 최정은 21

함께 하기

[10월, 11월 후원자 명단] 22

[광고] 교사모집 23

[광고] 노들인의 밤 24





『노인들의 밤을 준비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연극 공연을 준비하는 현장



수십장의 대본... 그걸 외우느라 뚱고 빠지는 연극반 사람들...

그 속에는 야학의 일상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술먹고 싸우는 얘기, 집안과의 전쟁, 사랑...

그래서 한없이 정겹고 알 수 없이 슬프다.



『노들인의 밤을 준비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보았습니다.』

— 수화 공연을 준비하는 현장



가장 완성도(?)가 높은 공연을 펼치는 수화반.

마음이 아직 좌충우돌이고, 연극반이 대본 때문에 찢찢매고 있는 사이~

수화반은 복습과 재점검에 들어갔다.^^;

막강 수화반! 아름다운 공연을 기대해본다.



『노들인의 밤을 준비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보았습니다.』

— 마임 공연을 준비하는 현장





역시 좌동엽의 ‘오버’가 돋보이는 작품이 아닐까…ㅋ

아직까지는 도통 무얼하는지 알수 없다.

하지만 작년에 난타는, 도통 무얼하는지를 극복하고

정말~ 아주 정말 멋진 공연을 보여주지 않았던가…

또 한번 기대해본다. ‘오버’의 마임팀이 최고의 공연을…

『노인들의 밤을 준비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보았습니다.』

— 합창 공연을 준비하는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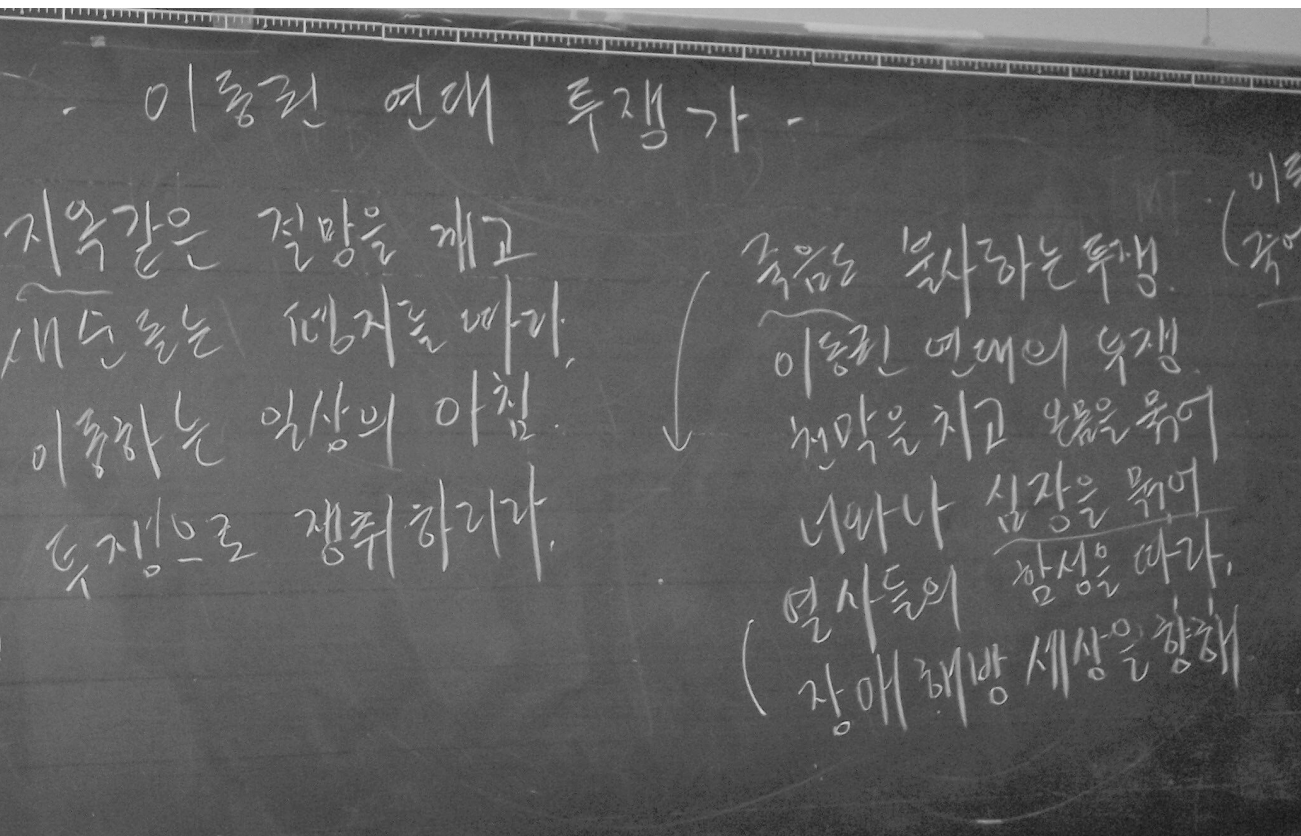
‘노란들판의 꿈’을 다시 부르기로 했다.
이곡을 작사한 오버쟁이 좌모 교사는 무척 즐거워 하지만,
모두들 장송곡 분위기를 걱정하고 있다. ^^;;
노들에만 있는 노란들판의 꿈...
그 꿈을 찾기 위해서인지 다음 곡은 ‘꿈찾기’이고...
이상하다~ 이번 노들인의 밤은 일상애긴데...ㅋㅋ



「좌교사 왈, ‘일상이 곧 꿈이고, 꿈꾸는게 곧 일상이야.’」

『노들인의 밤을 준비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보았습니다.』

— 야학의 다양한 일상적인 현장



이동권연대투쟁가

지옥같은 절망을 깨고 / 새순돋는 평지를 따라 / 이동하는 일상의 아침 / 투쟁으로 쟁취하리라 / 죽음도 불사하는 투쟁 / 이동권 연대의 투쟁 / 천막을 치고 온몸을 묶어 / 너와 나 심장을 묶어 / 열사들의 함성을 따라 / 장애해방 세상을 향해

- 별것 아니던 종이나 구슬이 현정이 손에만 들어가면 '작품'이 되고...
- 2002년 12월, 번쩍이던 새차. 우리의 노들봉고 스타렉스가 2년만에... 여기저기가 찌그러지고, 이상한 소리를 낸다. 제2의 프레지오가 될 운명을 가진 불쌍한 노들봉고 스타렉스~
- 10시 수업이 끝나면, 사람들이 봉고를 타고 아차산 역으로 내려갈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하고... 믿기 힘들겠지만 우리 그렇게 30분씩 '잘가' '안녕' 한다.
- 불수레반 학생 세미나. 장애인 교육은 어찌고 저찌고 ~



삶의 한 조각 - 나의 어린 적으로부터...

좌동엽 (교사대표)



삶이란? 아주 철학적이기도 하고 어쩌면 진부하기 짝이 없는 물음이긴 하겠지만... 여전히 각자 자신에게 있어서 삶의 문제란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민해 보기도 하고 이야기 하는 것은 중요하다 생각한다.

나는 나의 어린 시절을 저주 한다. 사실 지금은 아무런 감정도 남아 있지 않지만 그 때 나의 감정은 반드시 그런 것이었다고 기억한다. 내 환경과 나 자신에 대한 비겁함들...

아주 평범한 어린 시절의 기억 한 자락이겠지만.. 그리고 나보다 더 질곡이 많은 삶이 대부분인 야학 학생들 앞에서 내 이야기가 어쩌면 거만스럽게도 보일지 모르겠지만... 삶이란 건 결국 자신에게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냥 노들인의 한사람으로서 조금은 이야기하고자 한다.

슈퍼(그 당시에)가 있었다. 우리 누나가 사오라는 물건을 샀었다. 그리고 계산하려고 계산대 앞에 갔을 때 두 사람의 점원이 섞이면서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나는 계산을 끝마친 것처럼 했다. 한 점원이 나에게 계산했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다른 점원에게 계산했다고 그랬다. 완벽했다. 나는 너무나 기분 좋아서 당당하게 슈퍼를 나왔고 집에 가서 누나에게 돈을 남겨왔다고 막 자랑했다. 그날 나는 엄청 욕먹었고 그 다음에 슈퍼에 가서 돈을 내고 왔다.

훔치는 짓의 가장 잘 못된 것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도 있지만 자신도 속이게 된다는 것이 더 큰 것 같다. 나는 그 당시 버스에서 내릴 때도 안내양에게 버스비를 낸 것처럼 말하기도 할 때였다. 무엇이 잘못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말이다...

자신을 속이면 자신의 삶 전체가 병들게 되겠지..

♣ - 왕따와 비겁함

♣ - 훔침

언젠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우리 동네에 큰

아마 그때는 그런 용어가 없었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왕따' 라는 표현이 더 정확했던 것 같다. 누구도 싫어하고 놀림감이 되보고 맞는 것도 일상이 되어 너무

삶이란 것,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거부했을 때, 길이 나는 것은 아닐까?

아직도 나의 삶의 여정은 갈 길이 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하지만 누구나 다양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배경에는 그 자신의 삶의 경험과 고민이 있을 것이다.

힘들어 가끔 저항해 보다가도 이내 포기하고 익숙하게 지내는 것... 적당히 친구들 비위 맞추고 분명히 잘못됐음에도 침묵하는 것..

나는 언제나 강자 앞에선 약했고 비겁했다. 강자 앞에서 저항하는 것.. 그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다. 내가 나를 괴롭히는 이들에게 그토록 오랫동안 저항하지 못했던 일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누구도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나를 이해하는 이도.. 함께 싸우는 이도...

그 이후의 나는 오랜 나날들을 어릴적의 내 비겁함들에 대해서 수치스러웠지만 그러나 아직도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다. 단지 유일하게 깨달은 것은 비겁한 삶이란 죽은 삶이라는 것...

의 대상도 아니었다. 그냥 그 때는 그런 것에 너무 익숙해져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난 비웃는 웃음을 즐기고... 그런 것이 죽도록 싫었지만 언젠가 난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지금은 어찌면 기억도 나지 않아서 억지로 떠올려야만 하는 어릴 적 이야기지만 나는 그 때의 경험들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노들 야학이라는 곳에 오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삶의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설 때 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내 판단의 기준이 되었던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내 삶의 방식을 만들어갈 때마다 지금의 나를 만든 것 같다.

♣ _ 나의 어릴적으로부터..

누가 날 보고 놀리고 구박해도 잘 참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드랬다. 사실 그건 어렸을 때 너무 단련되었던 것 같다. 솔직히 지금은 누가 그래도 좋다. 마음이 안 그런걸 알기 때문이다. 어릴 적에는 마음까지 날 무시했던 거 같고, 난 스스로도 당연히 바보라 생각했으니까 너무 싫었다. 아무도 나에게 신경써주지도 않았고 관심

삶이란 것,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거부했을 때, 길이 나는 것은 아닐까? 아직도 나의 삶의 여정은 갈 길이 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하지만 누구나 다양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배경에는 그 자신의 삶의 경험과 고민이 있을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내 어릴 적 그렇게 무시받고 억압받았던 삶의 경험들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나의 길을 선택하고 다시금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인 것 같다.

허진태 이야기~

태애경



♣ _ 2002년 7월 초 태애경 노들야학 입성하다...

2002년 10월 중순 쯤, 동이 뜨기 조금 전, 고대 앞 어느 편의점...별써 2차까지의 술자리는 정리되었다. 술이 딱이 된 허진태가 한잔만 더 하자고 꼬드기고, 손진한(?) 태애경 술도 잘 못 마시면서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둘이서 처음 술을 마시다.

그전까지 허진태와 태애경은 교육부 때문에 자주 보기는 했지만, 둘이서 얘기 한적을 없었다. 허진태 인상이 워낙 그렇지 않나...????

그날 처음으로 개인적인 얘기가 오갔다. 별로 궁금하지도 않는데, 별 얘기를 다 했다. 누구를 좋아했었고, 학교를 몇 번 맞았고, 아버지가 야학을 싫어하시고...오~~~ 허진태의 과묵한 이미지가 깨지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수다스럽다니...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 뿐이었다. 나한테도 이것저것 물었는데, 난 며칠 전에 남자친구랑 헤어졌고, 왜 헤어졌냐 길래, 그냥...이라고 대답하고...아무튼...--;

그리고 또 며칠 후, 대수학 2차 시험이 있던 날... 술을 이빠이 마시고는 메시지 수십통을 보내왔다. 공부

해야 되는데, 술 먹고 어디서 꼬장인지 --; 반은 씹고 반은 답해주면서 도서관에 있었는데, 어라~~ 급기야는 "보고 싶다"는 문자가 왔다. 어디 아픈 건가...--; 지가 날 언제부터 알았다고...다음 날 바로 아주 예의 바르게 메일을 보냈다. 남자 친구랑 헤어진지도 얼마 안됐고, 우리 서로 알지도 못하고...난 누구를 다시 만날 생각도 없고, 그러니 다시 그러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술 먹고 꼬장부리지 말라고 '지랄지랄' 하고 싶었지만, 그때 나는 야학에 한참 적응하고 있던 때였고, 야학이 너무 좋아지고 있었던 때라, 차마 교육부장인 허진태에게 ;지랄지랄 '하지는 못 했다.

허진태의 대답은 "미안하다", "알았다"였다. 하지만 그 후, 매일 몇 통씩 쏟아붓는 허진태의 메시지를 받아야 했다.--;

지금에 와서 얘기지만, 정말 매력 없는 남자였다. 특히 난 다부지지 못한 사람은 정말 별로 였다. (머 지금도 허진태가 다부지냐고 물어보면 확신할 수 없지만^^;) 근데 이진 극치다...맨날 학교 안 가고 술 먹는게 자랑이고, 아르바이트 하나 하지 않고, 한 술 더 떠서 술 먹고 불러놓고 야학 후배인 나한테 술 값을 내라고 하질 않나...추운 겨울날 맨발에 슬리퍼를 끌고 나와서는 자

나는 늘 운명적인 사랑을 꿈꿔 왔었다. 드라마나 순정만화에서 보는 운명적인 사랑을...

그러한 드라마나 만화에서 보던 운명적인 사랑은 늘 참기 힘든 고통을 수반하는 법...

어느 한쪽이 죽던가... 숨겨진 과거가 있다던가...

기 발가락에서 피가 난다면서 발가락을 들이밀지 않나...술이 만땅으로 취해서는 학교로 막 찾아오질 않나...종민이 형이랑 아예 고대 앞에 방을 얻질 않나...처음 보는 유형이었다. 그것도 아주 골 때리고, 기가 막히는...

머...그래도 어쩔 수 없었다. 당시 내가 야학에서 가까워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교육부 사람들이었고, 허진태는 교육부 부장이니까 야학사람들과 가까워지려면, 잘 참고 견뎌야 했다.--;

허진태에 대한 인상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12월 중순, 노들인의 밤 풍물 연습을 하면서 부턴 거 같다. 어라~~ 이런 면도 있었네...굉장히 열심히였다. 내가 몇 달 동안 알고 있던 허진태가 만나 싶을 정도로 다부져 보였다. 그리고 보기와 다르게 자상한 면도 있는 거 같고...그때 처음으로 '아...이 사람 이런 괜찮은 면도 있구나' 했다. (아차~ 그 무렵 허진태가 cd한장을 선물로 줬는데, 주면서 자기가 선물을 줬으니 영화를 보여 달라는 거다. 그럼 그렇지....--:)

그리고는 같이 호프 준비를 하면서, 1,2월 한참은 전, 동엽, 정은, 기룡, 애경, 진태 정말 매일같이 지겹도록 술을 마시면서는 많이 가까워졌다.

(종민이 형 말대로, 정말 종민이 형 공이 컸다. 종민이 형이 날 그렇게 불러내지 않고, 노들인의 밤 때 같이 하라고 부추기지 않고, 호프때도 나랑 진태형이랑 같이 준비팁장 시키자고 우기지 않았던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가끔 종민이 형의 공에 대해 얘기하곤 한다.^^~)

역사적인 2003년 3월 11일... 그렇던 허진태와 태애경이 처음으로 손을 잡는다.

그 일주일 뒤 어이없게 졸업하자마자 결혼하자는 프로포즈를 받는다.--;

그리고 2004년 11월 초, 참치 고추장 참치찌개와 아주 촌스럽게 포장한 장미꽃과 함께 "같이 살자"는 정말이지 촌스럽디 촌스러운 프로포즈를 받는다.

생각했던 것과 많이 비슷하고, 또한 많이 다른 사람이었다.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 아주 정말 무드 없고, 매너 없지만, 의외로 자상해서 2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 점심때면 꼭 전화를 해서 밥으로 무얼 먹었는지 물어본다. 술 마시고 데리러 오려면 군말 하지 않고 어디든 데리러 오고, 별 이유 없이 혼자서 '지랄지랄' 해도 다 받아준다. 무엇보다 아직 난 허진태와 한 번도 싸워본

나는 늘 운명적인 사랑을 꿈꿔 왔었다. 드라마나 순정만화에서 보는 운명적인 사랑을...

그러한 드라마나 만화에서 보던 운명적인 사랑은 늘 참기 힘든 고통을 수반하는 법...

어느 한쪽이 죽던가... 숨겨진 과거가 있다던가...

적이 없다. (머 허진태는 싸웠다고 얘기하지만...싸운다는게 먼저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난 아직 나한테 화내는 허진태를 본적이 없다. 십년을 만나 온 보통의 연인들 보다 더 많이 봤지만, 아직까지 수퍼마켓 갈 때도 내 손을 꼭 잡아준다.

사람들 재수없어 하는 소리가 벌써 들려온다.^^;

그렇게 허진태와 태애경은 결혼을 하기로 하는데...

나는 아직 이 결혼이 실감나지 않는다. 한 달 후면 허진태와 부부가 되어있을 생각... 웃음부터 나온다. ㅋㅋ 인류지 대사라고들 하는데, 난 왜 아직까지도 허진태와 마냥 소꿉놀이를 하는 듯한 기분인지 모르겠다. 아니다... 이 기분에서 깨어나질 않기를 바란다^^;; 결혼해서도 마냥 소꿉놀이인 듯 즐겁게 살게...^===^

나는 늘 운명적인 사랑을 꿈꿔 왔었다. 드라마나 순정만화에서 보는 운명적인 사랑을...

그러한 드라마나 만화에서 보던 운명적인 사랑은 늘 참기 힘든 고통을 수반하는 법...

어느 한쪽이 죽던가... 숨겨진 과거가 있다던가... 집에서 칼을 들고 반대하던가...

안타깝게도 아니 다행스럽게도, 참기 힘든 고통이 수반되지 않아, 운명을 만 천하에 드러낼 길은 없지만, 노들이 맺어 준 이 인연이 보통이 아님을 안다.

그래서 나는 노들이 맺어 준 이 인연에 감사한다.

나는 허진태에게 먼저 연락하는데 익숙하지 않다. 늘 받는데 길들여 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안하고, 또 고맙다. 오랜만에 내가 먼저 전화해 봐야 겠다.

【 노 . 들 . 안 . 에 . 무 . 슨 . 일 . 이 】

신임교사 이야기

전권세 (신임교사)



8살에 오른손을 다친 이후로 내겐 의수와 긴팔이란 껍데기가 필요했다. 장애인으로 비춰지는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었기 때문이다. 장애가 노출되었을 때 타인으로부터 받는 주목은 마치 무대에 혼자 서 있는 듯한 느낌이다. 이런 감정은 소심한 내게 견디기 힘든 고통이다. 장애를 감추고자 하는 욕망과 노력은 정체성의 부재와 의식의 정체로 이어졌다.

대학 입학 후 학생운동을 접하면서 혼란된 정체성과 사회의 모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세계를 다른 시각으로 봐야할 필요성을 느꼈고 새로운 사고로 의식을 강제 했지만 여전히 껍데기는 벗어 던지지 못했다. 필요에 의해 관계를 맺고 객관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맘을 열고 자신을 공개하는 속 좁은 인간 관계론을 고수했다.

우연하게 온게임넷에서 시각장애인과 프로 게이머의 ‘스타크래프트’ 경기를 보았다. 오로지 청각에만 의지해서 게임을 함에도 불구하고 프로 게이머와 대등한 경기를 펼쳤고 나에게 충격 그 이상을 주었다. 본인도 한손으로만 스타크래프트를 즐겨하고 잘한다고 자부하지만, 내 경우엔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들의

경기는 차원이 다르다. 그들에겐 다른 능력이 있었던 것이다.

‘differently abled people’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 바로 외국에서 장애인을 새롭게 지칭하는 단어라고 한다. 시각장애인의 경기 이후에 이 단어는 내 머리를 잠식했고 결국 장애인운동을 위해 고민할 수 있는 곳을 찾다가 노들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노들을 통해 20년간 입어온 껍데기를 벗길 기대해본다.

【 노 . 들 . 안 . 에 . 무 . 슨 . 일 . 이 】

신임교사 이야기

이화연 (신임교사)



직장생활의 시작과 함께 야학에 온지도 3개월째에 접어들고, 벌써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12월이다.
그동안 난 무엇을 느끼고 배웠을까. 무엇이 달라졌나.

‘나’란 인간은 장애인의 범주에 들어있는 비장애인으로 살아왔다.
육체는 장애인이되 사고방식은 누구보다도 비장애인인 주변인.
현실과 욕심(?)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은 좌절과 자학으로 끝나고 마는 비관적인 생각들
나의 정체성마저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고 싶었다.
좀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생활을 보고 싶었고, 생각을 듣고 싶었다.
그리고... 앞가림을 하느라 급급했던, 팍팍한 일상을 탈피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찾고 싶었다..

이 공간은 나에게게는 개념부터가 낯설고 생소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만학의 꿈을 이루기 위해 모인 곳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나에게 노들야학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여기에는 배우고 싶어도 그 기회조차 갖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있다.
배우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배울 수 있다는, 교육기회의 평등은 이 곳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견 삶에 대한 작은 몸부림이며 세상에 대한 투쟁이다. 노들인들이 존경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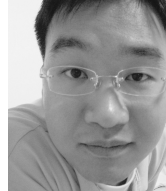
....

하루하루가 새로워야 한다.
어둠에서 적응하려고 조금의 빛을 찾아 동공이 커지는 눈처럼, 다가올 내일이 오늘보다 나를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기에... 세상을 헤쳐갈 용기도 생기는 것이 아닐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 2004. 10. 29 | 휴직교사 강병완



흠. 저는 강선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노가다회사라서... _-aa 급적급적

아마도 다음주(혹은 그 다음주) 중으로 여천현장(여수)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화요일 불수레 수업은 하고 내려갈 것 같은데요. 아마.. 어찌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해야할 일, 매듭짓지 못한 일들이 노들뿐 아니라 여기저기 정말 많은데

벌려놓고 아퀴하나 짓지 못하고 내려가야 하는군요. 내년쯤 내려가려나 싶었는데.. ^^::

허진태교사가 아마도 LG붙을 것 같은데 후반기 공백이 걱정되기도 하구요.

편집-_-부.. 쿨럭

나 없으면 외로울 흥, 흥, 알.. ㅋㅋㅋㅋㅋㅋㅋㅋ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드리겠습니다.

대출받아서 술이나 음팡 사드리고 가야겠네요.

앗, 기간은 아마도 짧으면 2년~ 길면 6년가량 될 듯합니다.

장가는 물건너 갔네요.. ㅋㄷㅋㄷ

피곤해서 끄적...

| 2004.10.27 | 최정은

몸을 이끌고 다닌다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이고 더러움이고 또한 사랑이다.

유하, <세상의 모든 저녁> 서문 중에서

11월은 홀로 서 있지도 않은 것이 1월보다 더 쓸쓸해 보인다.

2004년 10월 후원자 명단

●●● 지로 후원

(주)리폼시스템

●●● 은행 후원

양혜영, (주)루트컨설팅, 김재진, 반영신, 임동규, 오선실, 강상규, 김보매, 고기연, 고명선, 배상균, 김기형, 서정희, 손우정, 윤종배, 현정훈, 이민규, 김은영, 서금석, 류경원, 최양희, 김병해, 홍영선, 유인지, 유별라, 이지은(2), 서현수, 유정옥, 김두레, 안수희, 박미영, 전윤우, 안수희(2), 김동호, 박경순, 박문진, 이마트, 행동하는의사회, 김정만, 안성희, 배태섭, 이광재, 여연주, 이호중, 김소희, 정진용, 김미선, 박성희, 이현숙, 박근성, 한운경

●●● CMS 후원

강경완, 강병완, 강정자, 고아라, 고제현, 구진선, 권재수, 권태국, 김기룡, 김덕훈, 김도현, 김도훈, 김동효, 김동희, 김명학, 김미애, 김민정, 김범식, 김범준, 김병기, 김비호, 김선옥, 김신자, 김애경, 김연선, 김연희, 김영희, 김완길, 김우혁, 김유선, 김은미, 김은천, 김재권, 김재운, 김정숙, 김정연, 김지수, 김창보, 김태인, 나선영, 노혜련, 류정숙, 마미주, 민점식, 박경석, 박경혜, 박경화, 박누리, 박민영, 박상일, 박하연, 반정희, 백미화, 백재선, 서명아, 서미선, 신복순, 신승애, 신현훈, 심미경, 심한권, 안민희, 안희옥, 양현준, 엄기양, 옥샘, 원윤아, 윤정미, 이경희, 이미랑, 이미영, 이미자, 이석원, 이순웅, 이승현, 이알찬, 이우석, 이은숙, 이은정, 이재령, 이정훈, 이재현, 이종실, 이지은, 이지혜, 이철우, 이해창, 이현숙, 이현진, 이홍규, 이희국, 임춘학, 임혜숙, 장선정, 장영숙, 장효정, 전경옥, 전민숙, 정수진, 정영란, 정영석, 정용균, 정진수, 조미정, 조연희, 조은경, 조자영, 조현숙, 좌동엽, 좌미경, 좌혜경, 진소영, 천종민, 최경숙, 최경일, 최동호, 최미란, 최우영, 최정숙, 최정은, 최현주, 추경미, 태애경, 하성우, 한남희, 한명숙, 한정은, 한지선, 한지훈, 한혜선, 허건, 허진태, 허창, 홍갑출, 홍송대, 홍은선, 홍진표, 황해진

●●● 지로 후원

(주)리폼시스템, 윤석봉

2004년 11월 후원자 명단

●●● 은행 후원

양혜영, 장영숙(2), 신동길(2), 김남숙, (주)루트컨설팅, 김재진, 반영신, 영은교회, 강일성, 고기연, 오선실, 김보매, 손우정, 배상균, 서정희, 김기형, 고명선, 윤종배, 현정훈, 이민규, 김은영, 서금석, 박경선(2), 최양희, 김용철(2), 이창영, 김병해, 홍영선, 유인지, 이지은, 유별라, 서현수, 유정옥, 김두레, 박성희, 이현숙, 박근성, 한운경, SLS수능학원, 전윤우, 박미영, 안수희, 김동호, 박경순, 황미향(2), 이영미, 박문진, 김정만, 안성희, 행동하는의사회, 배태섭, 이광재, 여연주, 이호중, 정진용, 김미선

●●● CMS 후원

강경완, 강병완, 강정자, 고아라, 고제현, 구진선, 권재수, 권태국, 김덕훈, 김도현, 김도훈, 김동효, 김동희, 김명학, 김미애, 김민정, 김범식, 김범준, 김병기, 김비호, 김선옥, 김신자, 김애경, 김연선, 김연희, 김영희, 김완길, 김우혁, 김유선, 김은미, 김은천, 김재권, 김재운, 김정숙, 김정연, 김지수, 김창보, 김태인, 나선영, 노혜련, 류정숙, 마미주, 민점식, 박경석, 박경혜, 박경화, 박누리, 박민영, 박상일, 반정희, 백미화, 백재선, 서명아, 서미선, 신복순, 신승애, 신윤철, 신현훈, 심미경, 심한권, 안민희, 안희옥, 양현준, 엄기양, 옥샘, 원윤아, 윤정미, 이경희, 이미랑, 이미영, 이미자, 이석원, 이순웅, 이승현, 이알찬, 이우석, 이은숙, 이은정, 이재령, 이재현, 이종실, 이지은, 이지혜, 이철우, 이해창, 이현숙, 이현진, 이홍규, 이희국, 임춘학, 임혜숙, 장선정, 장영숙, 장효정, 전경옥, 전민숙, 정수진, 정영란, 정영석, 정용안, 정진수, 조미정, 조연희, 조은경, 조자영, 조현숙, 좌동엽, 좌미경, 좌혜경, 진소영, 천종민, 최경숙, 최경일, 최동호, 최미란, 최우영, 최정숙, 최정은, 추경미, 태애경, 하성우, 한남희, 한명숙, 한지선, 한지훈, 한혜선, 허건, 허진태, 허창, 홍갑출, 홍송대, 홍은선, 홍은진, 홍진표, 황해진

【 함 . 께 . 하 . 기 】

노들장애인야학 교사모집

장애 인구의 50%가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학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연히 국민으로 누렸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교육의 권리마저 누리지 못해 척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노들장애인야학은 이러한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교육공동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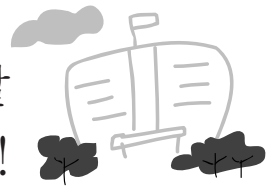
교사 수련회 중

<http://www.nodl.or.kr>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16-3 정립회관 교육관 3층

●●● 교사지원 문의 02-766-9101 (사무실)
02-446-9101 (야학)
master@nodl.or.kr

노들장애인야간학교와 함께 희망을 만들어갈 후원인을 모집합니다!



●●● CMS 후원 가입 안내

CMS 후원은 후원의 의지가 있는 분들이 은행에 가서 직접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새로운 후원방식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거나, 출금에 필요한 정보(출금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저희 야학(담당자)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766-9101 / 011-9194-7713(홍은전))

●●● 은행 자동이체 신청 안내

통장, 통장 도장,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거래하시는 은행의 자동이체용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계좌 번호]

국민은행 835-21-0312-815
기업은행 133-025369-02-019
농협 029-12-200545
신한은행 353-02-276437
외환은행 170-19-30457-4
우리은행 470-07-035448
조흥은행 904-04-255208
하나은행 757-810128-43007

* 지로 번호 : 7648533
전구좌 예금주 : 박경석

웃음이 이따

마취제만 믿기 특별한 것이 이따

추락하는 것은 낯가 이따

아름이 이따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이따. 노력이

박경석이 이따

이제는 말할 수 이따

김동이 이따

이따 [있다]

이따 보자고

장애인도 교육 받을 권리가 이따

우리는 살아 이따

노들아학은 구의동 정립회관에 이따

장애인도 이동할 권리가 이따

내가 이따

아학도 비말이 이따



나는 내가 지난 노들인의 밤에 볼 일을 맡고 이따

행사 끝나면 뽕이 이따

2004 열두번째 노들인의 밤

하는 때 : 2004년 12월 18일 (토) 늦은 다녔시

하는 곳 : 정립회관 대강당(15호선 이차산역근처)

하는 이 : 노들장애인이학 학생과 교사들...

문의 곳 : 759-9101 / 017-306-4155

04488-9020 홈페이지 주소 www.odax.net